

2016년도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사업 심사총평

- 심의유형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분야) 통합심의
- 심의일시 및 장소 : 2016. 3 3일(목) 15:00/대학로예술극장 지하 1층 중연습실
- 심의위원 : (연극)백로라, 김미혜/(무용)김예림, 김이경/(음악)박재성, 이석렬/(전통)전지영, 송혜진

[통합 심의평]

2016년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사업에는 총 43건(연극 11건, 무용 9건, 음악 20건, 전통 3건)의 사업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신청서류 미비 및 전년도 정산보고 미접수, 지원신청 내용상 부적격 사업 등을 검토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 다만, 전년('15년) 대비 '16년 본 사업의 예산이 크게 삭감(3억 4천만원 → 2억)되어 지원선정대상 및 지원결정액을 결정하는데 많은 고충이 있었다.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를 주요 심의기준으로 두되, 각 장르별 지원신청사업의 역사성과 상징성 등을 감안해 논의하였으며 장르별 심사평은 다음과 같다.

[연극분야]

연극분야는 총 11건이 접수되었으며 지원신청서류 미제출 사업 1건을 결격사유로 결정하고 지원대상에서 우선 제외하였다. 연극분야의 지원신청 사업 중 상징적이며 역사성이 있는 대표 전문지 발간 사업과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를 심의기준으로 담론 생산을 위한 세미나 행사 등 배정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사업 총 3건을 선정하고 총 7천만원을 배정하였다. 전년에 비해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되어 배정된 예산만으로 지원선정함에 큰 어려움이 있었으며, 향후, 예산이 확대되어 비평집 및 전문지 발간 등이 활성화되어 연극분야의 발전을 위한 담론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

[무용분야]

무용분야는 총 9건이 접수되었으며 지원신청서류 미제출 사업 1건을 결격사유로 결정하고 지원대상에서 우선 제외하였다. 무용분야의 지원신청 사업들은 오랜 역사성을 가진 무용전문지, 연간발행지, 세미나 등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무엇보다 전년 대비 본 사업 예산삭감의 규모가 크다보니 선정된 사업의 수준이 일정수준이상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현황을 감안, 총 7건을 선정하고 총 6천3백만원을 지원결정 하였다.

[음악분야]

음악분야는 총 20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심의를 통해 총 5건을 선정, 총 5천만원을 지원결정 하였다.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를 심의기준으로 하여 배정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였다.

신청사업 20건 중 단순 발표회나 음반제작 사업 13건은 본 사업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부적격 사업으로 우선 결정하였으며, 그 외 7건에 대해 학술서적 발간과 비평매체 발간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 신청서 상의 사업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일관되지 않는 경우, 심포지엄에서 배부되는 단순 자료집 제작의 경우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지원대상 결정사업은 지원대상의 활동 내용과 소요예산을 고려하여 지원액을 배정하였다.

[전통예술분야]

전통예술분야는 총 3건이 신청되었으며 이 중 전년도 동일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미제출 사업 1건을 배제하고 나머지 2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총 2건을 선정하고 1천7백만원을 배정하였다.

전통예술분야는 심의 대상이 적었음에도, 신청사업 모두 비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아카이빙과 세미나로 선정과 지원액 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사업수행 단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비평·연구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전통예술분야 전반적으로 담론 생산과 비평 활동이 활발해지기를 바란다.

2016년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심의위원 일동